



세월호 1000일 얼마나 기다려야 진실이 인양될까

세월호 침몰 999일째인 8일 진도 팽목항. 휴일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르포 - 진도 동거차도·팽목항·경기도 안산에서 맞은 1000일

‘그 날’로부터 딱 10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세월호가 누워있는 팽목수도가 코앞인 동거차도, 그렇게도 애타게 아이들을 기다리며 서성거렸던 팽목항, 아이들이 꿈을 펼쳐가던 안산의 교정은 아직도 분노와 회한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한 권에서는 언젠가는 마지막 한 아이까지 다시 만날 수 있으라는 희망도 솟아나고 있다.

〈관련기사 2·3·6·16면〉

세월호 아빠들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외롭고 힘들었던 지난 1000일을 오롯이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보다도 ‘진실 규명에 대한 열망’이었다고 단언했다.

아들 재강이를 잃은 허흠(51)씨는 8일, 세월호가 잠든 바다가 멀리 바라보이는 동거차도에서 “세월호를 끌어올려 침몰 원인을 찾고 책임자도 처벌하려고, 아이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려고 모진

시간을 버텨왔다”고 했다.

와야들 영석이를 떠나보낸 오병환(46)씨는 “책임자를 가려내고 처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표정과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분명했다.

안산 416 기억교실에서 만난 은정 엄마 박정화(51)씨, 윤희 엄마 김순길(51)씨도 지난 1000일간 떠오르지 않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버텨왔다고 했다.

엄마들은 “청와대는 범죄자 집단이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밝혀진 사실도 부인하는 이런 나라에 사는 게 소름끼친다.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오랜 인고의 세월이 단련되어서였을까. 엄마들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묻어있었다.

1000일을 앞둔 휴일 팽목항은 모처럼 분주했다. 전국에서 몰려든 추모객들은

동거차도 아빠들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장 중요” 팽목항 추모객들 “이제, 조금만 기다려요. 잊지 않겠습니다” 안산 유족들 “광화문·금남로 집회에 새로운 희망 꿈꿔요”

바다로 향한 방파제를 걷고, 분향소 영정 앞에 국화를 올려놓으며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치인도 눈에 띄고 언론사 차량도 모처럼 팽목항 주변을 둘러싼다.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도 늘어난 방문객을 맞이하며 ‘아직,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아이를 둔 아빠 엄마라면 그 1000일을 직장에 나가 돈을 벌고 밥을 지으며 아들 딸의 미래를 생각했을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며 열심히 땀 흘렸을 것이다. 자식 때문에 연성을 높이며 부부가 싸웠던 수많은 시간, 아들 딸을 혼내고선 잠을 이루지 못했던 무수한 밤들도 언젠가는 행

복한 추억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세월호 아빠 엄마들에게는 그러나 미래가 없다. 즐거운 날엔 빠르게, 고단한 순간엔 더디게 움직였을 삶의 시곗바늘은 그날로 멈춰서버렸다.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그날 세월호와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참사발생 1000일이 다 되도록 아이들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진전된 게 없지만,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학교에 다녔던 안산은 고요하기만 했다. 2년 전 꽃피는 봄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 아이들 200여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도시는 치솟는 분노를 모두 광화문

광장에서 터트려버린 것일까.

세월호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 소재를 밝혀내는 그날이 되어서야 시곗바늘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털어내고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세월호 가족들이 오순도순 살았던 집 대신 움막에서 잠을 자고, 직장 대신 광장으로, 거리로, 국회로 매일 나서는 이유다.

엄마 아빠들은 지난 1000일간 외쳐 온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요구에 대해 조금씩 응답이 들려온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내일을 기다려본다. 서럽고 외로운 외침이 광화문과 금남로, 목포의 광장과 팽목항, 대구의 동성로, 부산의 서면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거대한 함성으로 메아리쳐 온다는 생각에 엄마 아빠들은 1000일만에 다시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다.

/동거차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안산=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팽목항=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세월호의 진실 규명을 다짐하는 촛불 64만여개가 전국에서 타올랐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광주 금남로·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는 새해 첫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촛불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진실 규명, 책

“박근혜 내려오고 세월호 올라오라”

광주 금남로 새해 첫 촛불집회

노란 바람개비 들고 희생자 추모

임자 처벌이 주제였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세월호 1000일의 기다림’을 주제로 제11차 광주 시국 촛불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주최측 추산 6000여명(경찰 추산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은 촛불과 함께 오월어머니회가 만든 바람개비를 들었다. 한 손에 ‘대통령 즉각 퇴진’, 또 다른 손엔 ‘세월호 인양’을 상징했다.

정용화(64)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주제 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 1000일째인데 진실은 하나도 밝혀지지 못했다”며 “진실을 위해 하루빨리 세월호를 인양하고 세월호특별법도 제정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000일을 맞은 세월호 가족 인사 영상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을 가리는 ‘홍선 416개 날리기’ 등이 진행됐다. 시민들은 일제히 노란 바람개비를 들고 금남로 일대를 행진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전남지역 14개 시·군에서도 시민 4000여명(경찰 추산 1400여명)이 주말 11번째 촛불을 들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주제로 제11차 범국민행동 집회가 개최됐다. 주최 측은 이날 밤 8시 기준으로 60만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이 주축인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7일 오후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하며 탄핵기각과 특검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탄기국은 “오늘 집회에 102만명이 참석했다”고 선언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 일지점 최다 인원을 3만 2000명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민주당 대선후보 ‘물의 전쟁’ 시작

추미에 “후보자 의견 수렴 설 연휴 전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을 마련에 나서는 등 당내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 추미에 대표는 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부터 당내 대선 경선을 마련을 시작하겠다”며 당내 설 연휴 전 경선을 위한 대선 예비후보 등록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당헌당규 상으로는 작년 12월에 이미 마련되었어야 하지만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조금 늦었다”며 “무엇보다 후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모든 후보가 수긍할 수 있는 최적의 경선 룰을 만들겠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가장 공정하며 중립적인 경선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설 연휴 시작 전에는 등록을 마쳐도록 할 것”이라며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우리 당 예비주자들이 더 많은 국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가동과 관련, “우리 당은 국회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은 국민주권·국민주도를 원칙으로 하는 ‘제대로 된’ 개헌”이라며 “만에 하나, 개헌이 정치권이 해쳐 모이기 위한 도구로 비쳐진다면 개헌 동력은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견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특성화고 40명 해외취업 ▶6면

함께 걸어요 통일의 길 ▶18면

KIA 연봉협상 ‘타고투저’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www.kjbank.com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2017 정유년에는 다~~~ 이루어진답니다!

JB금융그룹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JB우리캐피탈 | JB자산운용 | JB금융지주

광주은행